

이대로 가면...60년 후 개나리꽃 2월에 핀다

기상청, 봄꽃 3종 개화일 전망 분석

머지 않은 미래에는 광주·전남에서도 겨울철을 비롯해 사시사철 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년 뒤, 목포에서는 현재 개화시기보다 2주일이나 빠른 3월 10일이면 개나리가 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60년이 지나면 21세기 후반이면 목포에서 2월 25일 개나리꽃이 개화해 겨울철에도 꽃이 핀다는 것이다.

겨울에 봄꽃이 핀다는 전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봄을 대표하는 꽃인 개나리·진달래·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는 확인했다.

1950년대에 비해 60년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는 개나리는 3일, 진달래는 9일, 벚꽃은 7일 정도 개화가 빨라져, 21세기 후반(2081~2100년)

2010년 진달래·벚꽃, 60년 전보다 3~9일 개화 빨라 온실가스 감축 실패 땀 생태계 혼란...대책 마련 시급

에는 현재에 비해 개나리는 23일, 진달래는 27일, 벚꽃은 25일 정도 더 개화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미래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를 포함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강릉 등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미래의 봄꽃 개화일은 현재(1991~2020년) 대비 21세기 전기(2021~2040년), 중기(2041~2060년), 후반기(2081~2100년)에 각각 '5~7일', '5~13일', '10~27'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현재처럼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온실가스를 감축해 2070년께 탄소중립에 이르는 시나리오)에서는 10~12일 당겨지는 결과가 나왔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개화시기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로는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개나리 개화는 목포가 2월 25일로 6개 지점 중 가장 빨랐다. 만일 저탄소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목포에서 개나리는 3월 12일 정도에 꽃이 피는 것으로 예측됐다.

고탄소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목포에서는 진달래는 2월 23일 개화(저탄소시나리오 경우 3월 11일), 2월 21일 개화가 전망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벚꽃은 3월 13일 개화(저탄소 시나리오 경우 3월 25일)가 예상됐다.

과거 1950~2010년대(약 60년간) 봄꽃 개화일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약 60년 이후(21세기 후반기)는 23~27일로, 개화시기 변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화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봄의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 경칩과 같은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밀접상통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봄꽃 개화시기의 변동은 지역 축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생태대시국장은 "2월달에 봄꽃이 필 수 있다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기후변화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변동폭이 커진다는 의미"라면서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후 가로등 LED 교체 광주 서구 7억 투입

광주 서구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과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한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광천·동천동 일원 176등과 삼촌·유덕동 일원 102등, 풍암·금호동 일원 105등, 기타 취약지 주변 1100여 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1만 1012등으로 지금까지 72.7%인 8005등을 LED로 교체했으며,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 약 7300여 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더욱 밝고 안전한 도심환경이 조성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보안등 DB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가로등 DB시스템을 추가해 GPS지도를 통한 이력 및 민원관리 등 체계적인 도로조명 관리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고 무인 매장 풍경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금호중앙여고에 들어선 무인매장에서 학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물건을 치르고 있다. 학교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은 유인 점포보다 낮은 판매가격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며, 수익금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북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광주 유일' 선정 사업비 6억 확보...구직 단념 청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 북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 '2022 청년도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북구가 광주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선

정됐다. 북구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2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진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취업 동기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집중 감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전남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상반기에 감독을 실시하고,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하반기에 감독할 예정이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47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 1분기에는 대형화재, 지반 및 토사붕괴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이 확보된 시스템 비계 미사용 현장 등이 대상이다. 2분기에는 지붕, 대들보, 철골빔 등 건축 공정상 추락위험이 높은 건축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건축공사 중

공정률이 40~90% 구간에 달한 현장을 중점 감독하는데, 이는 비계에서의 추락 사고가 빈발하는 공정 구간이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50억원 미만 현장 중에서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개선권고(안전단간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고리 체결 등)를 따르지 않는 건설현장을 주로 감독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감독 시에는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원청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사고예방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중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광주지역은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은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차원의 감독에 집중하고, 범위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토요 가족체험' 신청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 만3~5세 대상 13개 프로그램 진행

"가족과 함께 높이하며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광주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 매주 토요일 '만3~5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 가족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 가족 체험은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하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토요 가족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1회당 20가족(유아 1명·보호자 1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만 3~5세 유아와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내·외 13개 다양한 체험영역 활동과 놀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분기별 4가지 특별체험 활동(전래놀이·책놀이·체육놀이·음악놀이)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